

이시카와현립미술관 히로사카 별관(구 육군 제9사단장 관사)

이시카와현립미술관 히로사카 별관은 1922년에 육군 제9사단 사단장의 관사로 건축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다이쇼 시대(1912~1926)의 특징적인 군 관사 사례로 보존되었으며, 2016년에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전국에 현존하는 군 관사는 단 6채뿐이며, 이 별관은 그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 배경

다이쇼 시대의 건축물은 서양의 영향과 다양한 양식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00년 이상 쇄국정책을 펼쳤던 일본은 1854년에 군사력에서 훨씬 뛰어난 미국 함대의 내항으로 인해 강제로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서양 국가들과의 압도적인 국력 차이를 깨달은 일본은 빠르게 근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지도자들은 건축을 포함한 서양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의 건축가들이 초청되기도 했지만, 일본의 건축가들 또한 독자적으로 서양건축물의 외관 등을 모방하면서 일본의 전통적인 요소를 융합하는 등 다양한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건축을 발전시켰습니다.

주요 특징

현재의 정문 현관은 마차를 타고 도착한 방문객이 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삼각 박공지붕의 차양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단장과 가족들은 오른쪽에 있었던 제2현관으로 출입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이 현관이 있던 자리에는 작은 맞배지붕이 남아 있으며, 하단부는 회색빛 돌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 지붕은 북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프티머 양식으로, 목재 골조의 핑크색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은 모르타르 굵기 마감으로 처리된 독일식 벽으로 중후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반박공과 도머형 환기탑이 있는 유럽풍 지붕입니다. 정면과는 대조적으로 뒷면은 백색 목재 외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연합군 점령 하에 있었던 1945년 당시, 이 건물을 접수한 미군이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후에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에는 정교한 장식이 돋보이는 맨틀피스가 있는 벽난로 2개와 희귀한 유리로 만든 조명기구 등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당시의 물품들이 여러 점 남아 있습니다. 또, 각 방마다 다른 천장의 목재장식도 당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숨은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설계도를 통해 초기에는 넓은 주거공간도 함께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장은 서양관(현재 남아있는 건물의 절반)에서 업무와 접대를 했으며, 가족들은 다다미가 깔린 일본식 건물에서 생활했습니다. 일본식 건물은 1962년에 철거되었으나, 2008년과 2016년에 일부가 개조되어 일본식 방 한 칸이 복원되었습니다.

현재 용도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이 건물은 미군장교 관사, 가나자와 가정재판소, 이시카와현 아동회관, 야조원, 인근 겐로쿠엔의 휴게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이시카와현립미술관의 문화재 보존 및 복원 공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방은 미술관 소장품의 복원과 유지뿐만 아니라 차세대 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트레이닝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터치패널식 디스플레이를 통해 복원과정을 배울 수 있으며, 견학코너에서는 실제 복원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